2018년 8월 3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국과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트럼프, "다음 주 2 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발효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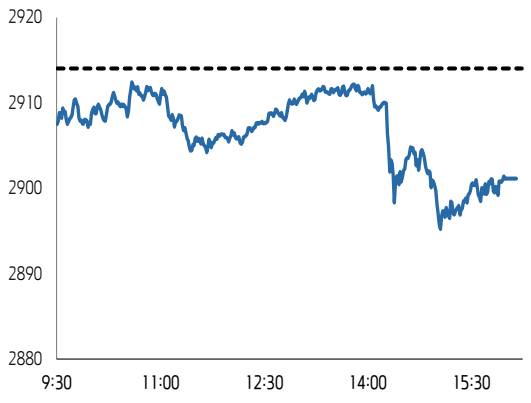
무역 분쟁 우려 확산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미-중 간의 외교적인 마찰도 부담. 이런 가운데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에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폭 확대 (다우 -0.53%, 나스닥 -0.26%, S&P500 -0.44%, 러셀 2000 -0.14%)

미국과 중국은 지난 16 일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현재 500 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상호 25%의 관세를 발효 중. 이러한 과정 속에 시장 참여자들은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에 주목. 지난 20~23 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는 2 천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기업들과 공청회를 개최 했으며, 9 월 5 일까지 기업들의 예외 요청을 받음. 9 월 6 일에는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음. 이후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10 월에 관세 발효되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음. 그런데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에게 다음 주에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시장은 2 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품목은 중간재 제품이 많다는 점에 주목. 미국이 관세를 발효했을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2 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을 줬던 부분은 원자재가격(17%), 국제유가(17%), 운송료(17%), 임금(12%)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약 59%를 차지. 이는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는 것을 반증. 그렇기 때문에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발효가 실제 진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 이에 대해 투자은행들은 관세 발효 시 미국 기업들의 EPS 는 6~10%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 그 동안 미 증시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효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관세 발효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부담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07.35	-0.07	홍콩항셍	28,164.05	-0.89
KOSDAQ	804.47	+0.16	영국	7,516.03	-0.62
DOW	25,986.92	-0.53	독일	12,494.24	-0.54
NASDAQ	8,088.36	-0.26	프랑스	5,478.06	-0.42
S&P 500	2,901.13	-0.44	스페인	9,467.60	-1.06
상하이종합	2,737.74	-1.14	그리스	739.70	-0.44
일본	22,869.50	+0.09	이탈리아	20,495.10	-1.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마이크론 상승세 지속

애플(+0.92%)은 9월 12일 새로운 아이폰 출시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장중 한 때 2% 넘게 상승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큐로브(-1.11%), 스카이웍(-1.64%), 브로드컴(+0.77%) 등 애플 관련주도 장중 상승 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지수 조정 여파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축소했다. 아마존(+0.21%)은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견조한 움직임이었다. 마이크론(+1.79%)은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칩 제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장 후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보잉(-0.94%), 캐터필라(-1.97%) 등은 하락 했다. 포드(-2.71%)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정크등급 바로 전 단계인 Baa3 단계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GM(-2.05%)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4%	대형 가치주 ETF	-0.58%
에너지섹터 ETF	-1.19%	중형 가치주 ETF	-0.71%
소매업체 ETF	-0.68%	소형 가치주 ETF	-0.18%
금융섹터 ETF	-0.77%	배당주 ETF	-0.38%
기술섹터 ETF	-0.30%	변동성 ETF	+2.18%
소셜 미디어업체 ETF	-1.61%	대형 성장주 ETF	-0.36%
인터넷업체 ETF	-0.23%	중형 성장주 ETF	-0.55%
리츠업체 ETF	-0.53%	소형 성장주 ETF	+0.05%
주택건설업체 ETF	-0.84%	신흥국 고배당 ETF	-2.55%
바이오섹터 ETF	+0.39%	신흥국 저변동성 ETF	-1.64%
헬스케어 ETF	-0.08%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82%	물가연동채 ETF	+0.09%
반도체 ETF	-1.07%	Long/short ETF	+0.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1.63	-0.32%	+1.39%	-1.26%
소재	372.56	-1.25%	+1.81%	+1.22%
산업재	645.49	-0.77%	+0.83%	+1.42%
경기소비재	925.79	-0.61%	+2.00%	+4.40%
필수소비재	551.43	-0.29%	-0.63%	+0.14%
헬스케어	1,071.37	-0.11%	+1.44%	+3.82%
금융	469.72	-0.79%	+0.71%	+1.23%
IT	1,325.59	-0.29%	+3.03%	+4.16%
통신	154.64	-0.39%	-0.62%	+3.26%
유틸리티	270.91	+0.13%	+0.30%	+1.35%
부동산	207.59	-0.56%	+1.08%	+1.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제조업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99%, MSCI 신흥 지수도 2.6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636 계약) 여파로 1.05pt 하락한 297.2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4.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증시는 그 동안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부각되며 글로벌 증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었다. 최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국가라는 점을 제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이슈에 한국 증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음 주에 관세 발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폭을 확대했다. 이러한 무역분쟁 격화 우려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터키 리라화가 3%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부담이다. 전반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분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증시 하락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시각 오전 10 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지수도 주목된다. 시장은 전월(51.2) 보다 소폭 둔화된 51.0 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표 둔화가 중국에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질 지, 또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나타날지 여부에 따라 한국 증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지난 8 월 14 일 중국의 산업생산을 비롯한 실물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중국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감세안을 발표하는 등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9 일 연속 상승했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개인지출 전월 대비 0.4% 증가

미국 7 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개인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3% 상승 했다.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0.2% 상승하는 등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 만 3 천 건으로 지난주(21 만 건) 보다 소폭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WTI) 70 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전일에 이어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및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기대감이 이어지며 상승했다. 더불어 이란이 미국과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 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 수송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유가(WTI)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힘입어 70 달러를 상회 했다.

달러지수는 소비지표 개선 및 신흥국 환율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터키 리라화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우려감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터키 리라화는 터키 중앙은행 부총재가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3% 넘게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며 달러 대비 0.5%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소비지출 등 경제지표가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며 상승 출발 했으나, 터키 이슈가 재부각 되고, 장 후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전환 했다.

금은 소비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7%, 철근은 0.34%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70.25	+1.06	+3.57
브렌트유	77.77	+0.82	+4.07
금	1,205.00	-0.54	+0.92
은	14.594	-1.46	-0.33
알루미늄	2,132.00	-1.84	+3.24
전기동	6,066.00	-0.33	+1.02
아연	2,467.00	-1.79	0.00
옥수수	356.50	0.00	-1.25
밀	535.00	-1.25	-1.25
대두	831.50	-0.54	-2.63
커피	102.65	-0.24	+1.13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4.678	+0.08	-1.03
EUR/USD	1.1671	-0.31	+1.14
USD/JPY	111.06	-0.56	-0.21
GBP/USD	1.3015	-0.08	+1.59
USD/CHF	0.9694	-0.11	-1.70
AUD/USD	0.7265	-0.63	+0.23
USD/CAD	1.2975	+0.53	-0.82
USD/BRL	4.1418	+0.86	+0.66
USD/CNH	6.8681	+0.68	-0.37
USD/KRW	1108.60	-0.14	-1.14
USD/KRW NDF1M	1114.20	+0.37	-0.8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60	-2.36	+3.43
한국	2.365	0.00	-3.00
일본	0.111	+0.80	+1.10
독일	0.346	-5.80	+0.7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467	+0.50	+9.70
포르투갈	1.912	+1.90	+11.90
그리스	4.343	+14.30	+19.20
이탈리아	3.208	+8.80	+12.50